

# “古下宋鎮禹는 建國틀 닦은 巨木”

을하는 교육가  
언론인 정치가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건  
국의 기초를 기여한  
남는데 크게  
탁생 1백주년(8월)이 되  
는 해.

48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  
1년반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월 10일 東亞日報가 강제 폐  
간될 때까지 20여년간 시  
장 고문 주필을 역임

했다. 해방 성해 해노 해박 韓賢宇

후에는 韓民黨을 결  
민족국가 건설을 위  
례하다 45년 12월 30일  
의 저격으로 별세

히  
해야 한다고  
고  
회고하면서  
들은  
들에게도  
온  
큰 교훈이 될  
것  
이라고  
한  
것  
을  
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韓民黨을 결성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45년 12월 30일 韓賈宇의 저격으로 별세했다.

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고하면서 그동안의 철학  
학은 오늘날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A black and white head-and-shoulders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He is wearing a dark suit jacket, a white shirt, and a dark tie. The photograph has a grainy texture and appears to be from a newspaper or magazine.

민족분열 막기위해 온갖 노력  
잔꾀없는 당당한 政治 강조

귀국후 仁村이 중앙학교  
를 입주하자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미족의식을 불  
어 넣었으며 3·1 운동 때는

古下宋鎮禹全集  
日報社  
東亞  
간 70주년과 고下 탄신 1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  
된全集은 古下의 전기 문  
집 평전 등 3권

한국  
朝鮮  
1965년  
東亞日報社에서 펴냈던  
下기를 증명해서 폐난경  
이다. 65년판은 6·25 때 주  
요자로가 없어진 살해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과  
일부 자료를 토대로 쓰여  
로 썼다.  
古方 관계자료로 조인인 「古  
人의 술집은 고수가 있음을  
하에서 직접 느낀 여론가들

지그룹과 박주와  
관련된  
대답 인물명 일정등 관련  
자료를 학제로운 것.  
이종 이재에 살린 대표  
적인 저술들이 1915년  
「學之光에 기고한 「상간개」  
『儒學』, 1925년 8월 28일

과를 토대로 집필한 평전.  
금교수는 서문에서 『宋鎮禹』  
는 기본적으로 교육가로  
여기 면서 언론인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그가 참여했던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은 처  
 음부터 민족운동에 일컬어

해방후에는 韓民黨을 결성해 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다 45년 12월 30일 韓賈宇의 저격으로 봉세 했다.

3일 열린 추모 강연회에 서 東亞日報 기자로 출석한 함께 일했던 李相敦씨(제헌회원)는 「최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채古下의 역사적 편향하여 경향이 있다고 개탄하고」古下는 일제강점국을 위해 일하다 비명횡사하신 위대한 민족지도자로 그분의 업적은 정당하게 평가되어 한라고 말했다.

李씨는 이어 출석하는 평소 「평정자는 고을상식으로 잡짜부리지 않고 정정당당

위해 자료수집과 증언을 모았던 徐廷柱씨(시인)는 「3·1 운동 준비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를 알려주면 때마다 감싸 하게 제지해 다시 추진력을 얻어 3·1 운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을玄相允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이정은 출석의 인용을 염두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徐씨는 또 「古下는 일제때 우리 민족의 분별을 막고 달랠 힘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헌신했다면서 이려 한 사실을 회고해보면 출석의 애국애족정신이 가슴깊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했다.